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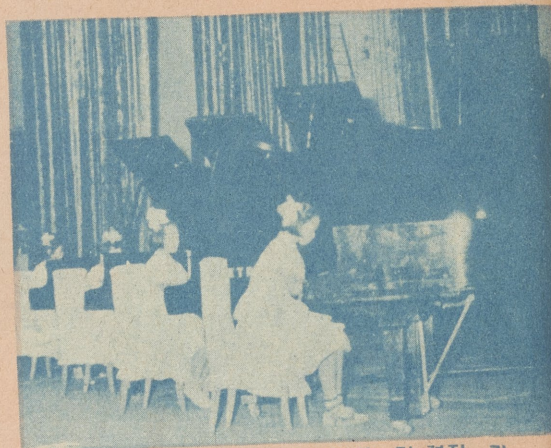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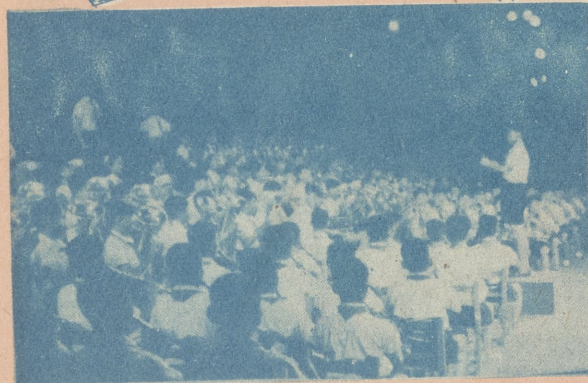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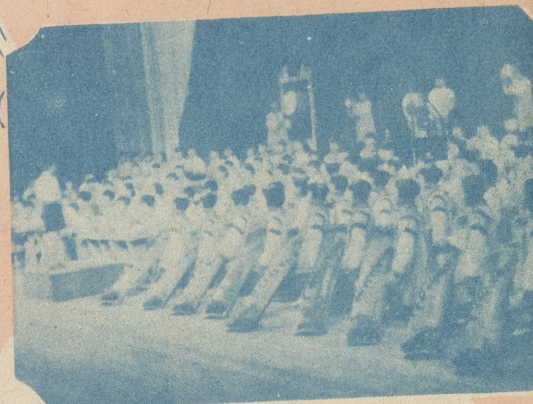
1961.10

소년단 1961.10

재능 있는 《꼬마 예술가》들

《이제로부터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경축하는 소년 음악 무용 써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세주 동무는 이렇게 공연 프로를 소개하였지요. 당 대회 대표들 앞에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연수십회에 걸쳐 진행한 이들의 공연은 항상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지요.

다음에 이들이 공연한 프로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합니다.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 초급반, 김 경진, 리 영화, 김 영자, 김 문자 동무들의 피아노 련탄

황북 송림 제철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관현악 《친선의 압록강》

함남 함흥시 흥덕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민족 관현악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삐리리 쿵덕, 삐리 쿵덕…》황남 배천군 수복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농악무 《우리도 백만톤 증산을 도왔어요》의 한 장면

김 광훈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10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8 회)

윤 복진

☆왜놈과 지주놈을 혼쌀낸 이야기

어린 시절 원수님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악독한 지주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고 그 나쁜 놈들이 어떻게 가난한 농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으며 살아 가는 가를 친히 보셨고 또 몸소 체험하시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날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을 데리고 만경봉에 올라 가셨습니다.

록음 우거진 만경봉은 참으로 아름다왔습니다.

유유히 흘러 가는 대동강 물은 푸른 비단 폭을 깔아 놓은 것처럼 곱고 아름다왔습니다.

《참으로 내 고향은 아름답구나!》

원수님은 속으로 혼자 이렇게 감탄하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아 오던 고향도 커 갈수록 점점 아름다우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다왔습니다.

원수님은 한참 동안 아름다운 고향을 황홀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푸른 소나무 그늘이 우거진 만경봉 기슭 아래서 《뚱땅 뚱땅》 장고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장고 소리가 들리더니 그 무슨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얼씨구 좋다!》

《참 자리 한다!》

산 돼지 목 따는 소리처럼 거칠고 목 갈린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원수님은 소리가 나는 발 밑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푸른 그늘이 우거진 곳에 낯선 배 한 척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 배는 흰 뺑끼 칠을 한 호화로운 배였습니나.

그 때 대동강에는 솔'단이나 장작을 실은 배, 생선을 실은 배, 곡식을 실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낡아빠진 돛배로 오랜 세월을 비'바람에 씻기고 사나운 풍랑에 시달려 거머충충 볼상 없는 짐'배들이였습니다.

참말 그런 짐'배들은 그 당시 무서운 가난에 쪼들리고 짓밟히던 조선 사람처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어둡고 아파지는 배들이였습니다.

《아니 저놈의 배는 어느 놈이 타고 왔을가?》

원수님은 높은 만경봉 우에서 그놈의 배를 자세히 살펴 보셨습니다.

배 안에는 고운 명주 옷을 명절 날처럼 차려 입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 놈들은 병에 든 술을 큰 잔에 부어 마시며 권하며 거드렁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 명주 옷을 입은 놈은 지주놈이다!》

원수님은 한 손을 들어 가리키며 동무들을 보고 말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저놈은 지주놈이다.》

《그놈 야 살이 피둥피둥 양돼지처럼 쪘구나!》

아이들은 원수님이 가리키는 그놈을 보고 저마다 이렇게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야 저 양복쟁이 놈은 어떤 놈일가?》

한 동무가 원수님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배 안에서는 또다시 《얼씨구 좋구나!》 하는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 소리는 술에 취해서 꼬부라진 소리만은 아니였습니다.

어데인지 조선 말에는 혀'바닥이 잘 돌아 가지 않는 놈의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저놈은 왜놈이다!》

원수님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악독한 왜놈 손아귀에 붙잡혀 죽을 고생을 겪으시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 어찌 증오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의아스러운 눈으로 기슭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성주야 왜놈하고 조선 사람하고는 큰 원수라고 하잖았니. 그런데 저 조선 옷을 입은 지주놈은…?》 하고 한 동무가 원수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조선 옷만 입으면 다 조선 사람인가. 조선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조선 사람이지!》

원수님은 너무나 격분하여 미처 말끝을 맺지 못하시다가

《저놈은 조선을 팔아 먹는 지주놈이

다! 지주놈은 왜놈하고 한 패거리다!》 하고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은 한참 동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시다가 원수님은 지난 여름 참의 밭에서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이 문득 회상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지난 해 여름 날, 평양 성안에 사는 리 가라는 지주놈이 사람을 보내여 왔습니다.

래일 모래 제 아들놈의 생일이라고 잘 익은 참의를 골라 한 접 따서 배에 실려 보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놈의 땅을 부치는 할아버지는 아니꼽고 분하지만 지주놈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주놈은 자기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거절만 하면 땅을 몽땅 떼여 버리는 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님과 삼촌 어머님을 데리고 참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여 아버님이 학교에서 돌아 오셨습니다. 집안의 바쁜 농사 일을 도우시려 밭으로 찾아 나오셨습니다.

논밭의 묵은 김을 매는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참의 밭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를 보시자

《아니 무슨 참의를 그렇게 많이 따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주놈이 제 아들놈 생일 잔치에 쓰겠다고 오늘 해 전으로 참의를 따 보내라고 해서 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입맛을 쓰게 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치시는 아버님은 지주놈을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자 아버님은 성을 벌컥 내시며

《온 종일 시원한 그늘에 앉아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그놈들 입에 먼저 익은 참의를 쳐 넣게 해요!》 하고 집안 어른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이 때 어린 원수님은 어머님 옆에 앉아서 아버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습

니다.

《참의 농사를 짓느라고 땀을 흘리며 애를 쓴 집안 사람들부터 먼저 맛이나 좀 봅시다.》 하고 주머니 속에서 제비 칼을 꺼내시여 제일 크고 잘 익은 참의를 골라 깎아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삼촌 어머님과 어머님께도 드렸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도 맛 좋은 노랑 참의를 골라 주었습니다.

참의 한 개를 맛 보시고 나서 아버님은 혼자'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사'군은 일 년 내내 피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못 얻어 입는데 제놈들은… 그러기에 왜놈들과 함께 부자놈들도 때려 부셔야한다!》

원수님은 그 날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 울려 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수님은 지주놈들은 똑 같이 다 나쁜 놈이란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정말 지주놈들의 욕심은 밑 구멍 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리 가라는 지주놈은 조랑 말을 타고 만경봉에 올라 왔습니다. 그놈은 큰 부채를 훨훨 부치며 첫 밤'송이가 맺기 시작한 밤나무를 돌아 보더니 원수님의 할아버지를 보고

《이 산에 열린 밤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되네.》 하고 낮짝 두꺼운 소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그놈의 말을 들은척만척하셨습니다.

사실 그 밤나무는 원수님의 할아버지가 손수 심고 가꾼 나무들이였습니다.

애써 가꾼 보람이 있어 그 해 처음으로 밤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때 원수님은 지주놈의 검은 배'속을 환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논 밭에 곡식이 익어 갈 무렵이면 지주놈은 배'놀이를 한다 하고 자주 만경봉에 찾아 오군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작인들에게서 한 톨의 낟알이라도 더 앗아 낼가 하고 뻰질나게 들락날락 거리며 못된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농민들이 애를 써 기른 암탉을 제것처럼 막 잡아 처먹군 하였습니다.

그놈은 지난 해 초 가을에도 논 밭을 한 번 휘돌아 보는 길에 원수님의 댁 뒤'곁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대추나무를 보았습니다.

대추나무에는 빨갛게 익어 가는 대추가 오지조지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놈은 한 참 동안 침을 흘리며 쳐다 보다가

《령감은 과실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손을 대서

는 안 되오. 올 가을에 우리 집에는 큰 제사가 있는데 저걸 몽땅 갔다 써야 되겠소.》하고 그놈은 자기 집 대추 나무처럼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서 계시다가 그놈의 말을 엿들으신 원수님은 기가 탁 막혔습니다.

《지주놈의 마음'보는 까마귀보다 더 시꺼멓구나 어데서 저런 놈이 다 생겼나…》

어린 원수님은 그 날 지주놈이란 정말로 큰 도적놈이란 것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일을 회상하면 원수님은 발 아래서 뚱땅거리며 노는 지주놈이 더 없이 미워났습니다.

그 지주놈이 원쑤 왜놈과 한 자리에 마주 앉아서 거들거리며 노는 꼴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아름다운 고향 만경대에서 왜놈과 한 패거리가 되여 노는 지주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쫓아야만 속이 시원히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애들아, 저 나쁜 놈들을 우리 고향 만경대에서 내쫓자!》하고 원수님은 발 아래 있던 큰 돌을 번쩍 들어 기슭 아래로 냅다 굴렸습니다.

그러자 동무들도 원수님의 본을 따라 큰 돌을 굴려 내려뜨렸습니다.

한참 거들거리며 노는 판에 갑자기 돌벼락을 맞은 왜놈과 지주놈은 질겁을 하였습니다.

《아이쿠!》

《칙쇼!》하며 죽어가는 비명을 올렸습니다.

《어서 빨리 배를 저어라!》

《빨리 빨리 저어 해라!》

연송 급해 맞은 소리가 나더니 놈들의 배는 만경봉 기슭에서 부리나게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원수님은 높은 만경대 우에서 손벽을 치며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동무들도 원수님을 따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소리는 웅장한 개선곡처럼 푸른 만경봉을 쩡쩡 울리며 넓은 대동강 우로 울려 퍼졌 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동시) **들에 풍년 산에 풍년**

쳐다 보면 까마득한
구학산 천해봉
사람 못살 두메산'골이라던
옛날 이야긴 아예 생각도 마세요
지금은 벌방사람 부럽잖아요

황금 물결 파도치는
저 논밭을 보세요
올해의 100만 톤 문제 없다고
아빠 엄마 가을 걷이 신이 났지요.

산비탈 옥수수도
팔뚝같은 이삭을 자랑하는 데
산판에선 머루 다래 풍년이라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지나가지요

원수님 말씀대로
아빠 엄마 일 잘하여
들도 산도 풍년 맞은 우리 마을
나는요 소리 높이 자랑해요

강원도 창도군 당산 중학교
3학년 맹 석

당의 기'발따라

리 기 영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회인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18일에 끝났습니다.

당 대회가 열리고 있던 그 8일 동안은 정말 명절 때보다 더 경사스러운 나날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데서나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같이 다함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었으며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렸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의 총칼 밑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남조선의 형제들과 밤낮없이 어머니 조국을 그리는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심장들도 평양에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우리 당 대회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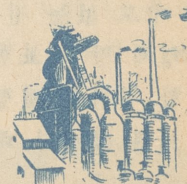
특히 대회에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구라파, 미주의 32개 형제 당 대표단도 참가하여 우리 당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습니다.

금번 당 대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와 당의 철석 같은 통일 단결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 단결의 대회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대회 첫날에 하신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들에게 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승리의 앞길을 밝혀 주시였습니다.

당 대회 대표들은 커다란 승리자의 자부심과 만족감으로써 한결 같이 보고를 지지 찬동하였으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자랑차게 토론하였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들은 수령님의 보고에 무한히 고무되여 새로운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 힘차게 나섰습니다.

지난 날 우리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청산되고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 꽃동산으로 되였습니다.

제 1 차 5개년 계획을 모든 면에서 4년 동안에 완수 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타사못 하나를 변변히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 기관차, 기선 기타 어떠한 기계든지 다 척척 만들어 내며 세계에서 제 1 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1년 남짓한 사이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논밭은 가물을 모르게 되고 농민들은 소 대신에 자동차, 뜨락또르를 부리게 되여 해마다 만풍년이 들며 두메 산'골에도 전등'불이 휘황히 빛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 미국놈들이 여지 없이 파괴한 그 재'더미 우에 불과 7~8년 동안에 오늘과 같이 도시와 농촌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설하고 경제와 문화를 놀랍게 발전시킨 데 대하여 외국 사람들까지도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지난 날 쓸모 없던 《갈대섬》이 《비단섬》으로 변하고 버림 받던 돌바위산이 《황금산》으로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야말로 지난 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환이 일어 났습니다.

형제 당 대표단들은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습니다.

쏘련 공산당 대표단 단장은 우리의 빛나는 성과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고 말하였으며 카나다의 형제 당 대표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조선을 어떤 마술과도 같은 나라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리 머지 않은 지난날에 우리는 락후하고 가난하고 약했기 때문에 외래 침략자들 한테서 천대를 받고 억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강력하고 번영하는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천리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당의 정책이 옳고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같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을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령도 자이신 김 일성 원수님을 경애하는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 대회에서 소년단 축하단은 당과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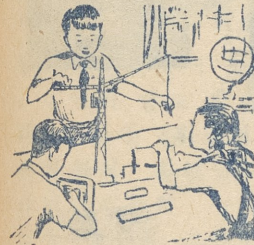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기뻐서 노래 부르며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쁜 일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로동당의 해'발 아래 자라나는 우리의 꽃봉오리들이야 말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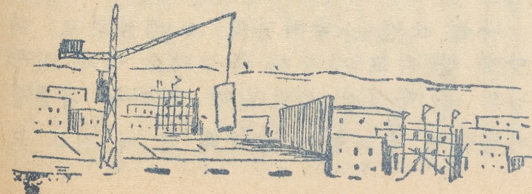
다른건 다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 한가지만 말해 봅시다. 지금 우리 나라 소년들은 누구나 다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제 7 개년 계획 기간에 기술 학교까지 9년제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아세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오늘도 훌겹고 좋지만 그것은 날마다 달마다 더 좋아지며 앞날은 더욱 광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제 4 차 당 대회는 7개년 계획의 보람찬 전망을 우리 앞에 펼쳐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인 7 개년 계획의 령마루에 올라서면 우리 나라는 부강한 사회주의 공업의 나라로 될 것이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몰라보게 향상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해방 전인 1944년 한해 동안에 만들어낸 공업 제품을 단 13일 동안에 만들어내며 의복천만해도 한사람 앞에 50메터씩 차례지게 생산될 것입니다.

1967년에 가서 매인당 수산물은 100~120키로그람씩, 알곡은 600~700키로 그람씩, 과실은 50키로 그람씩 차례지게 생산될 것이며 도시에는 60만세대 농촌에는 60만동의 문화 주택이 일떠서게 됩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9년 제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대학 수가 78개로부터 218개로, 대학생 수는 9만 7천 명으로부터 22만 7천 명으로 급속히 장성될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으로 뻗어나간 우리의 앞길은 얼마나 넓고 희망에 가득차 있습니까! 7 개년 계획이 수행되는 그날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도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앞날은 우리의 꽃봉오리들인 소년단원들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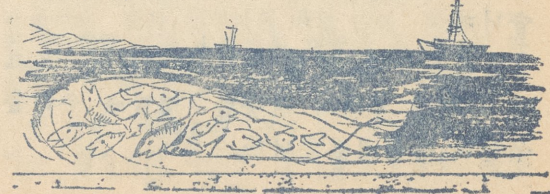
김 일성 원수님은 당 대회에서 하신 총화 보고에서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쓸모 있게 배워 지식 있고 도덕 품성이 바르며 몸이 튼튼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할 것을 가르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수령님의 이 가리침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의 훌륭한 모범을 거울로 삼아서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붉은 마음을 키우며 항상 실험 실습으로 과학 지식과 기술을 다져가며 소년단 생활을 잘하며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유쾌하고 씩씩하게 자라나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답게 항상 준비합시다.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의 모든 희망과 행복의 등대이며 승리의 조직자입니다.

로동당의 기'발을 따라 수령님의 부르시는 광명한 앞길로 가슴펴고 힘차게 내달립시다.

로동당과 함께 우리의 행복 영원하리

로력영웅 송성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며 자라는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이번에 영예롭게도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나날은 정말 감격과 흥분의 나날이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마 라디오나 신문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 대회야말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과 당과 수령님의 주위에 철석 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을 온 세계에 남김 없이 시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당 대회에 참가하였던 세계 5대주에서 온 32개 형제 당 대표들도 모두 한결 같이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와 7 개년 계획의 휘황한 전망은 우리를 무한히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경축하여 진행된 모든 행사들 특히 소년단 축하단, 소년 음악 무용 써클 공연, 평양시 30만 군중의 대 시위, 모란봉 경기장에서 진행된 대 집단 체조 《로동당 시대》 등 그 어느 것 하나 감격과 흥분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여 나흘째 되는 날 류창한 나팔 소리와 함께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 당 표식을 들고 소년단 축하단이 들어왔습니다.

소년단 축하단이 우리 인민에게 이처럼 오늘의 행복을 안겨 주고 빛나는 공산주의 앞길을 열어 주신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렸을 때 장내는 온통 만세 소리와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떠나 갈듯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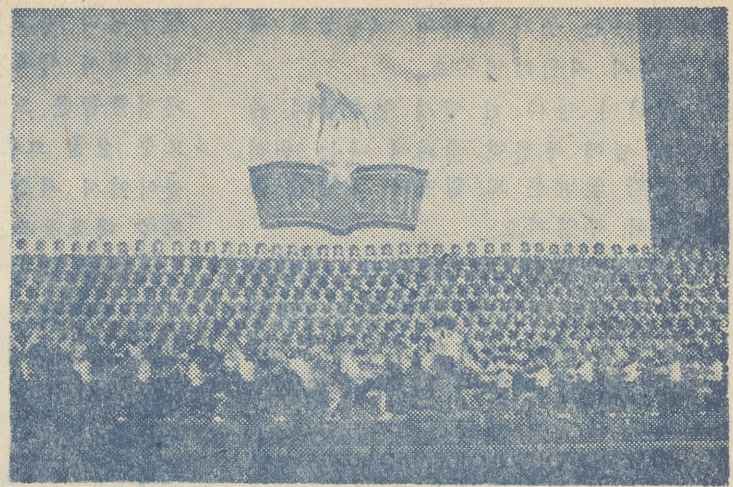
나는 소년단 축하단이 그 행복하고 희망에 찬 맑고 명랑한 목소리로 당과 원수님의 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기쁨을 자랑하며 우리들을 축하해 줄 때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언제 동무들처럼 이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 보았겠습니까.

또한 1,700 여 명으로 되는 소년 음악 무용 써클 공연을 보았을 때의 감격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그처럼 훌륭한 예술적 재능과 기교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양시 종로 중학교 400명 소년단원들의 대 합창
《휘날려라 소년단 기'발》

평양시 종로 중학교 400명 소년단원들의 대 합창 《휘날려라 소년단기'발》로부터 시작하여 황해남도 배천군 수복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농악무 《우리도 100만 톤 알곡 증산을 도왔어요》, 만경대 학원 초중반 소년들의 바라이떼 《붉은 씨앗은 자란다》, 함흥시 흥덕 중학교 소년들의 민족 관현악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 초급반 소녀들의 피아노 련탄, 그밖에도 남포시 남홍 중학교 윤 승전 소년의 독창 《손 풍금 소리 울려라!》, 평양시 기림 중학교 김 용운 소년의 바요린 독주, 그 모두가 세계 무대에 내 놓아도 대 환영을 받을 것들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외국 대표들은 만약 소년들의 국제 음악 무용 콩클이 있다면 문제 없이 조선 소년들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로동당 시대

작문

행복의 노래를 당에 드리고

9월 17일!

자꾸만 기다려지면서도 은근히 걱정되던 날밤입니다.

이 날은 우리들 소년단원들이 오래'동안 준비해 온 음악 무용 써클 공연으로 어머니 당 대회를 축하하는 날이였으니까요. 이 날 당 대회를 경축하기 위하여 공화국 각지에서 모여 온 우리들 1,700 여 명의 《꼬마 예술가》들은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당 대회 대표들과 32개 나라 형제 당 대표들을 모시고 공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듬고 다듬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나비와 같이 춤추었고 각종 기악 합주로 제 4 차 당 대회를 경축하였습니다.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대표 아저씨들은 터질듯한 박수로 우리들의 공연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계속 박수를 보내 주시였습니다.

당과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이처럼 목청껏 노래 부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더우기 32개의 형제 당 대표들까지 참가한 가운데서 당과 원수님의 사랑 속에 배우며 자라 온 우리 조선 소년들의 재능을 온 세상에 자랑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자꾸만 들먹거렸습니다.

당 대회 대표들과 형제 당 대표들은 몇 번이고 재청까지 하시며 우리들의 공연을 축하

에 꽃피여 나는 우리 나라의 《황금의 예술》을 또다시 시위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무한히 꽃피여 나는 우리 나라 예술의 앞날은 또 얼마나 양양한 것인가를 보여 주었지요.

19일 오후 모란봉 경기장에서 진행된 27,700 여 명으로 되는 대 집단 체조 《로동당 시대》 역시 제목 그대로 로동당 시대에 무한히 꽃피여 나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체력과 예술적 재능을 남김 없이 보여 주었으며 당과 수령님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힘을 시위하였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자랑하며 휘황한 7 개년 계획도 문제 없이 해 내리라는 우리 인민의 충천한 기세를 보여 준 것은 또한 9월 19일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를 경축하며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을 환영하는 30만 평양시 대 군중 대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아직까지 있어 보지 못한 굉장한 것이였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지난 날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자랑하는 가장물들을 모두 들고 나왔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물 그대로 움직이고 소리 내는 것들이여서 시위를 보는 군중들은 물론이고 외국 대표들도 모두 놀라와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가장물과 아름답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시위 대렬은 시위가 아니라 그대로 예술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손벽을 치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로동당 시대에 사는 자랑과 기쁨으로 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행복 이 기쁨을 안겨 준 우리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할 결의를 다지였지요.

그리고 당과 수령님의 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의 더욱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더 많이 땀 흘리리라고 다짐했습니다.

27,700 여 명으로 되는 대 집단 체조 《로동당 시대》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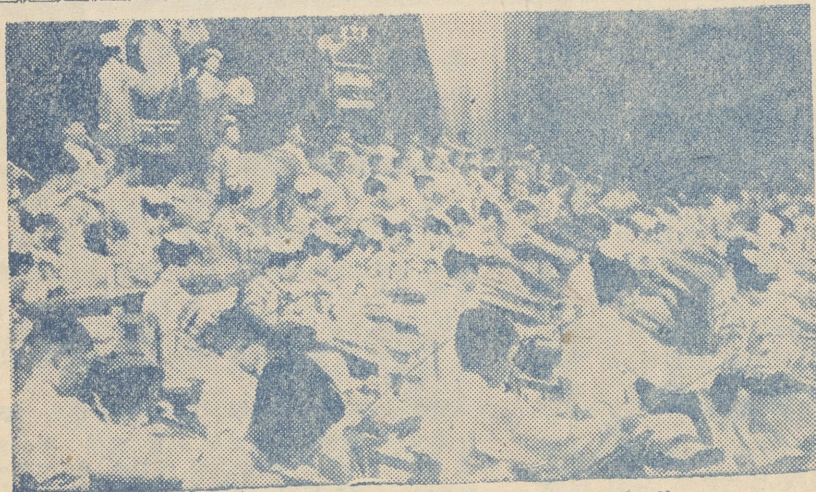
내가 일하는 서두수 발전소 건설은 7 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발전소 건설을 반드시 기한전에 끝내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도 이번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조국 앞날의 쓸모있는 일'군이 되기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배우기에 힘쓰십시요.

그리고 도덕 품성이 바르고 몸이 튼튼한 여러모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 힘쓰십시요.

그리하여 로동당의 령도따라 나날이 꽃피여 가는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빛내여 나갑시다.

평북 신의주 남송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민족 관현악

해 주셨습니다.

나는 절찬을 받을 때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 조국에 사는 행복과 긍지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과 원수님께 몇번이고 몇번이고 마음 속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 혼자만의 마음이였겠습니까. 우리 써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 모두의 마음이지요.

공연이 다 끝난 다음 중앙 민청 위원장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당 대회 대표들과 형제당 대표들의 높은 평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도 1등이 문제 없겠다고 칭찬해 주신 형제당 대표들은 자기 조국에 돌아가 인민들과 소년들에게 꼭 우리 소년단원들의 써클을 자랑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이렇게 꽃피워 준 조선 로동당은 우리의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1958년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 때에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 학교 써클원들의 공연을 보시고 민족악기 한 조를 주셨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도 오직 원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우리의 재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당과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 4 차 당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실험 실습,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하여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겠습니다.

평북 신의주시 남송 중학교
단 위원 김 옥 히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결정과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에 제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훌륭히 실천하고 있는 평북 락원 중학교 단에서—

김 준규, 최 숙산

☆ 몸과 마음 다 바쳐 조국을 사랑하자

락원 기계 공장 마을에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나 잠 들줄 모르는 공장 마을은 조국의 밤 하늘에 불꽃을 날리며 그 언제나 기계 소리 요란스럽다.

락원 중학교 소년단원들은 이 소리를 언제나 노래로 듣는다.

오늘 저녁도 최 명희 동무네 집에 반 동무들이 모여 든다. 이들은 제 8분단 5반 동무들이다.

반별로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내용을 한 조항씩 내 놓고 의논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은 어머니들까지도 모시고 척척 들어 선다. 어머니들과 함께 편지 공부를 하면서 조국을 잃었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난 날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이다.

모임에서는 단 위원인 심 해진 동무가 먼저 11분단에서 락원 기계 공장 김 석호 직공장 아저씨와 상봉 모임을 가진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는 15세 때부터 락원 기계 공장에서 일하셨다. 그러나 아저씨는 기술을 배울 수 없었다. 왜놈들 밑에서 바께쯔 만드는 기술 하나를 배우기 위해 아저씨는 얼마나 애썼던가.

한번은 무거운 쇠'덩어리를 나르다가 지나든 길에 일본 기술자 놈이 토면을 그리는 것을 동뒤로 술며시 넘겨다 보았다. 이것을 알아 차린 일본 기술자 놈은 대뜸 도면을 지워 버리고 아저씨의 목덜미를 틀어 쥐였다. 아저씨는 이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나라 없는 설음에 두 주먹을 틀어 쥐고 속으로 울었다한다. 그러던 아저씨는 지금 엑스까와똘, 탑식 기중기등 현대적인 기계들을 척척 만들어 내는 우리 나라 큰 기계 공장의 직공장이다.

지난 날 학교라고는 문어구에도 못 가본 아저씨는 7남매를 모두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였다.

《참 좋은 세상이니라, 옛날에야 어린 세상을 꿈엔들 생각해 봤겠니》하고 심 해진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난 명희 동무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명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명희네 아버지는 스물세살 젊은 나이에 돌아 가셨다.

락원 기계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그만 시뻘겋게 녹은 쇠'물에 오른 발을 허벅다리까지 빠뜨렸다. 그러니 살은 다 익어 떨어지고 뼈'속마저 꺼멓게 타들었다.

병원에 찾아 갔으나 돈이 없다고 약을 써 주지 않았다. 끝내 아버지는 약 한번 변변히 써 보지 못하고 돌아 가셨다. 명희가 아직 어머니의 배'속에 있을 때 조국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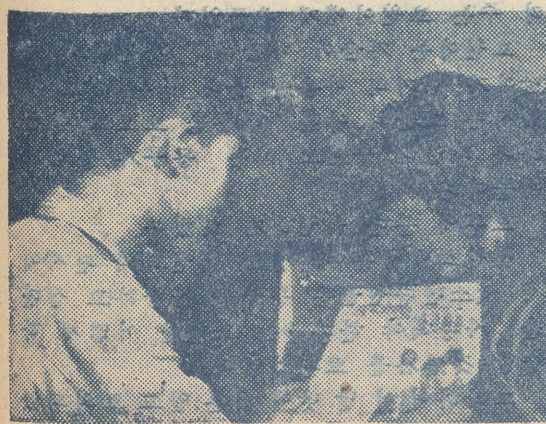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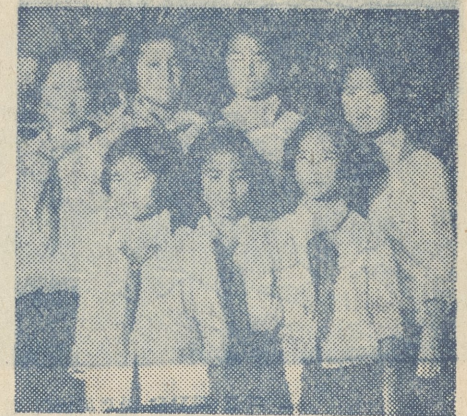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 명희는 8.15 해방과 함께 세상에 태여났다.

반 동무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고 모두 눈물을 닦으며 사랑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치자고 불끈불끈 두 주먹을 틀어 쥐였다.

며칠 후 분단에서는 반 별로 1 주일 동안진행한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학습 총화가 있었다.

5반 동무들은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우며 흥겹게 일하며 재능껏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하고 자랑찬 사회주의 제도와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을 학습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5반 학습 경험은 다른 반 동무들과 다른 분단들에도 알려졌다.

이곳 소년단원들의 《붉은 수첩》에는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늘어 갔고 분단 위원장들은 영예의 《붉은 등록장》에 공장과 병원, 협동조합, 상점, 영화관들에서 보내 온 감사의 편지를 읽으며 적어 넣기에 바빴다.

꼬마 방송실에서

동뚝 막은 7명의 동무들

8분단에서 있은 이야기의 한 토막을 보기로 하자

하루는 락원 협동 조합 제 4 작업반장 아저씨로부터 편지 한장이 선생님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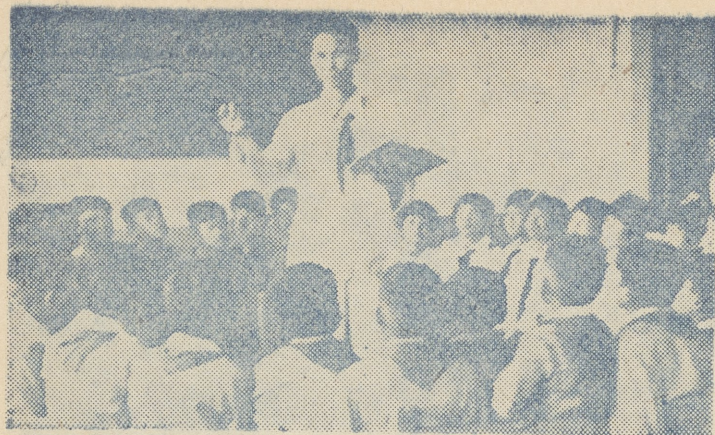
그것은 이분단 6반의 문 순희, 박 창식, 리 동숙, 김 명숙, 리 택순, 김 명순, 오 숙단 동무들이 지난 7월 비 오는 날 새로 쌓은 삼교천 동'뚝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막았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이날 학교에서 돌아 가던 길에 동'뚝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가요를 불러가며 막아냈던 것이다.

이때 이들은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애호해야 한다.》고 한 당 중앙 위원회 편지 구절을 생각하며 이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이다.

작업 반장 아저씨에게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식이 오자 단 위원회에서는 곧《꼬마 방송실》을 통하여 온 학교에 알렸다.

그리고 단 벽보 《우리의 자랑》과 분단 벽보들에도 소개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힘써 《모범 분단》이 된 17분단에서 공부하는 리 풍우 동무는 일본 히로시마 조선인 제 4 초급학교에 다니다가

김 석호 직장장 아저씨와의 상봉 모임

글을 쓴 기'발을 가지고 왔다. 《행복한 조국 품안에 하루 빨리 안기여 보람차게 공부하고 싶어서 조국 동무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먼저 보냅니다.》

이 기'발에는 11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의 마음이랴.

일본에서 설음에 겨운 나날을 보내는 60만 조선 사람들도, 남반부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리 풍우 동무가 안고 온 이 기'발은 이곳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에서 배우며 자라는 끝없는 행복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했다.

이럴때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를 실은《소년신문》이 도착했다.

분단마다에서 독보가 벌어지고 《꼬마 방송실》에서도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 마다 방송을 계속했다.

소년단원들은 조선 로동당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룩 하였는 가를 똑똑히 알았다. 분단마다에서는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래일의 우리 조국 만세!》가 실린《소년신문》을 가지고《7년 후의 조국은 이렇다!》는 제목의 모임을 가졌다.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생각하는 동무들의 가슴은 끝 없는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들은 모두 어서 빨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도와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하자고 결의했다.

이렇듯 이곳 소년단원들은 제 4차 당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 중앙 위원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더욱 잘 실천해 나감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자라고 있다.

☆ 《영예의 붉은 등록장 8번》

지난 6월에 있은 일이다.

산수 시간이 끝났다. 17분단 벽보 주필인 보원이는 숙제를 해오지 않아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창성이와 수남이의 곁으로 갔다. 《창성아, 숙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와야 되잖니.》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못해 왔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어.》

창성이와 수남이는 오히려 따뜻이 타일러 주는 보원이에게 대들었다.

보원이는 가슴이 아팠다. 창성이와 수남이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 주는 데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도 누구 하나 타일러 주려고 하는 동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분단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서 《소년단원들은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토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날 낮에 있은 일도 토의되였다. 사실 지금까지 동무를 돕는 일이란 그저 학습장이나 나누어 주고 일'손이 모자라는 동무네 집에 가서는 일이나 도와 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때문에 숙제를 안 해 와서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거나 복습을 해 오지 않은 동무들이 있어도 그런 일은 자기 일처럼 애타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오직 동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부족할 뿐더러 집단의 영예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탓이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진실로 동무를 돕는 것이란 어떤 것이며 집단의 영예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혁명 전통 이야기 모임, 독서 감상 모임 등을 더 많이 더 내용있게 조직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실행하였는가를 총화 짓자고 하였다.

그 후 분단에서는《참되게 동무를 돕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한번은 모임에 락원 기계 공장에서 일하시는 2중 천리마 작업반장 김 승원 아저씨를 모셔 왔다.

아저씨는 2중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시였다. 동무의 잘못을 여러 동무들이 따뜻이 타일러 고쳐 주며 동무에게 곤난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 작업반을 한 마음으로 뭉친 집단으로 만들어 생산 계획을 항상 넘쳐 실행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분단에서는 이날의 상봉 모임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작문을 짓기로 하였다.

작문을 짓는 창성이와 수남의 머리 속에서는 선생님의 이야기와 김 승원 아저씨의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분단에서 본 영화《붉은 꽃봉오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창성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구절을 속으로 다시 외워 보기도 하였다.

이 날 자기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새 결의를 다진 창성이의 작문은 분단에서 제일 잘 되였다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작문은 분단 벽보《붉은 마음》에도 소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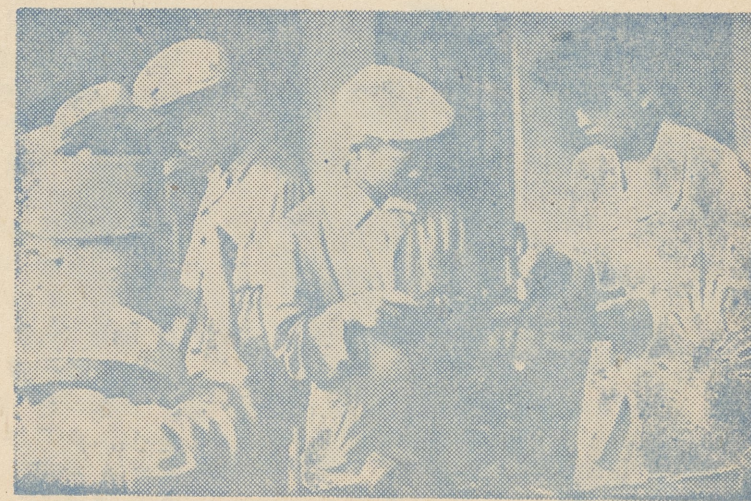
그 후 창성이의 생활은 나날이 달라졌다.

한 번은 선생님이 다음 날 공작 시간에 밀짚 공작을 하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분단 동무들을 위하여 10리나 되는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밀짚을 두단이나 얻어 왔었다. 이리하여 분단의《붉은 등록장》에는 여덟 번 째로 창성이의 이름이 오르게 되였다.

☆ 최우등생은 늘어 간다

하학 종이 울리자 7분단의 김 영철 동무는 인제는 모진 고비를 넘었다는듯《후!》하고 긴 숨을 쉬였다. 실습 공장에 들어 가면 손에 기름이 묻을가봐 눈치만 보아가며 일하는 영철이였던 것이다.

이 날 실습에서도 영철이는 자기 곁에서 작업한 박 후익의 못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 듯이 선생님에게 바쳤다.

분단 위원회는 로동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예로운 것인가를 동무들에게 더 똑

선반공 를 재운 형님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공작 크루쇼크원들

똑히 알려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분단에서는 《로동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을 만들어 낸다.》라는 제목으로 락원 기계 공장 로력 영웅 강락수 아저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영웅 아저씨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쓸모 있게 다져 나가며 로동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동무들은 영웅 아저씨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들이 4차 당 대회 전으로 금년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증산 투쟁을 눈부시게 하고 있는 공장을 돌아 보았다. 영철이는 로동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예롭고 귀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다.

《나도 크거들랑 엑쓰까와또르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될터이다.》그는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였다.

그때로부터 몇 주일 지난 9월 11일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가 열리였다.

분단 동무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곧 독보, 이야기 모임 등 방법으로 학습을 시작했다.

공작, 물리 화학 크루쇼크들에서는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학교 실습 공장과 실험실의 실험 실습 도구들을 갖추며 기계화할 수 있는 것은 기계화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물 크루쇼크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식물과 동물들을 키우며 그 재배, 사양 방법을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분단에서는 4 차 당 대회 결정과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학습하면서 무엇이건 만들어 보기를 좋아 하는 동무들의 과학 기술 탐구 욕을 더욱 북돋구어 주기 위해 1957년에 락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락원 기계 공장 2중 천리마 작업반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류 재운 형님을 모셔다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은 이번 4 차 당 대회에서 우리 나라를 7 개년 계획 기간에 더욱 발전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크게 내 놓은 데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조국 앞날의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 수학, 화학, 생물 등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형님은 지난 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 실습으로 쓸모 있게 다지지 못하여 공장에 들어가 남들은 4 개월이면 훌륭히 다룰 수 있는 기계를 6 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다룰 줄 알게 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을 잘 몰라 여러 번 오작품을 내던 이야기도 하였다.

형님의 이야기는 영철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장차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조국의 건설자가 되자면 물리, 수학, 화학, 생물, 등 과목을 더 잘 공부해야 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후 학교에서는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가 열리였다. 영철이는 자기가 만든 풍력계를 내 놓았다.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에는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만든 《꼬마 방송실》의 전축(낡은 것을 수리하여 만듬)통조림 통과 영구 자석으로 만든 마이크, 소형 변압기, 전동기, 고성기, 검류계, 질산 수은으로 만든 거울 등 80 여 점이 전시되였다.

단위원회는 크루쇼크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 《과학의 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소년 단원들에게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탐구 욕을 높여 주고 있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결정과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깊이 학습하고 그를 실천에 옮겨가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우등, 최우등생 대렬이 날로 늘어 가고 있다.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

2,570 건의 아름다운 이야기

2,570건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구요? 강원도 회양군 회양 중학교 6분단 위원장 리 은복 동무이지요,

이 동무는 먼저 자기가 아름다운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전체 분단 동무들이 따르도록한 분단 위원장입니다.

이 동무에게는 불붙는 집에 뛰여 들어 두살 난 어린 아이를 구원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돈 62원이 든 가방을 얻어 임자를 찾아 준 일도 있지요.

동무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는 이 동무는 성적이 뒤떨어진 10명의 동무들을 도와 그들을 모두 우등, 최우등생으로 이끌었어요. 이리하여 이 동무가 한 아름다운 일만도 지난 한해'동안에 376 가지나 되며 지금 분단 《영예의 붉은 등록장》에는 그의 모범을 따라 나선 분단 동무들의 2,570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3년 동안에 은복 동무네 분단에서는 도, 시, 군 표창을 47번이나 받았답니다.

리 은복

먼저 모범이 되여

고 대유

이 동무는 황남 재령군 고산 중학교 단 위원장 고 대유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항상 동무들의 앞장에 서서 먼저 모범을 보여 동무들을 이끌고 나가는 참다운 동무이지요.

이 동무는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에서도 항상 동무들의 앞장에 서지요.

지난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 때에도 자기가 맡은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와 토끼 기르기에서 300%의 성과를 올렸지요.

이런 모범적인 단 위원장의 뒤를 따라 이 학교 전체 소년단원들은 1959년에 토끼 2,700 마리를 국가에 수매시켜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고 지난 해에도 예정했던 것보다 1,000 여 마리를 넘쳐 국가에 수매시켰답니다.

이 뿐이겠어요, 4만 본의 과일 나무를 심어 학교 경제림을 만드는 데서도 이 학교가 군에서 제 1위를 쟁취했어요.

대유 동무는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에서만 동무들을 모범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성적이 낮은 13명의 동무들을 우등 최우등으로 이끌었고 자기 분단 동무들 모두가 노래하며 악기를 다룰 수 있게 악보를 가르치는 일도 훌륭히 했답니다.

슬기로운 혁명 정신을 본받아

리 향난

동무들은 리 현준 공화국 영웅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동무가 바로 리 현준 영웅의 딸 리 향난 동무랍니다.

이 동무는 평북 녕변 남산 중학교 단 위원장입니다.

이동무는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의 정신을 이여 용감히 싸운 영웅 아버지를 본 받아 자신이 혁명 투사들처럼 행동하기에 힘 쓰며 동무들의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는 동무입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책들을 빠짐 없이 읽고 80 여 번이나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소년단 조직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15 명의 동무들에게 회상기 이야기를 꾸준히 해 주면서 교양하여 그들을 모범적인 동무로 되게 하였습니다.

동무들을 이렇게 교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혁명 투사들처럼 행동하기에 항상 힘 쓰고 있는 향난 동무는 토끼 기르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 서 하면서 모든 동무들이 토끼 기르기에 열성을 다하게 하여 지난 해 인민반 1, 2 학년 동무들 모두가 빠짐 없이 털 모자를 해쓰게 했답니다.

이 동무는 지금 자기 학교 단의 19 개 분단 중 3개의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분단들도 모두 모범 분단으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이 동무는 량강도 백암군 연암 중학교 단 위원장 리 윤근 동무입니다.

연암 중학교 모든 동무들은 윤근 동무를 자기네 학교 단 위원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윤근 동무가 학습도 잘하거니와 모든 일을 자기 일 처럼 하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해 봄 식수를 할 때 이 동무는 2,300본이나 심고 잘 가꾸어 한 나무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이 동무는 자기가 심은 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무들이 심은 나무도 자기가 심은 나무처럼 잘 돌보았답니다. 이 동무의 모범을 따라 이학교 전체 동무들이 자기들이 심은 50 정보의 산림을 잘 가꾸어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쟁취했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윤근 동무는 학교를 항상 자기 집처럼 돌보면서 인민반 학생들의 책상 의자 856 개를 수리했답니다. 그리고 30 개의 각종 악기를 만들어 유치원에 보낸 일도 있지요.

지난 해 토끼 새끼를 65 마리나 내서 일본에서 돌아 온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토끼도 항상 자기가 기르는 토끼처럼 돌보아 준답니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윤근 동무의 이런 모범을 따라 소년단 사업을 훌륭히 하고 있답니다.

리 윤근

8 년간 최우등생

리 선옥

8년을 계속 최우등을 한 함남 홍원군 운포 중학교 4 분단 위원장 리 선옥 동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씩 꼭꼭 복습하여 그날 배운 것은 그날에 알고 지나는 동무이지요. 이렇게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로동을 사랑하며 생산 실습도 훌륭히 한답니다.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에서도 이 동무는 피마주, 해바라기, 토끼 기르기 등 자기가 맡은 것을 350%나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으로 항상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해 익혔지요.

그리하여 이 동무는 최우등생일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어떤 일이던지 자신있게 하며 자기 옷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는답니다. 그 뿐인가요, 풍금, 가야금도 멋지게 타지요.

지금 분단 동무들은 선옥 동무를 두고 《척척 박사》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 배우기에 힘쓴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림 성욱

이 동무는 황해남도 안악 중학교 단 위원장 림 성욱 동무랍니다.

성욱 동무는 무슨 일이든지 단 위원들과 항상 의논하여 분공하고 약속했던 일은 제때에 꼭꼭 총화하여 단 사업을 훌륭히 해나가는 단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 나가는 동무예요.

이 동무는 단 위원들이 분단을 한 분단씩 맡아서 도와 주기로 되였을 때, 제일 뒤떨어진 7분단을 맡았답니다. 성욱 동무는 7분단 동무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 7분단 동무들이 힘들어 하는 일을 앞장서 해주면서 그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성욱 동무의 모범을 따라 한사람처럼 행동하게 된 7 분단 동무들은 지금 《모범 분단》 칭호까지 쟁취하였고 뒤이여 성욱 동무가 지도한 4학년 2반 동무들도 《모범 분단》 칭호를 쟁취했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해서 훌륭히 해나가는 성욱 동무는 학습도 꾸준히 하여 6년 간을 계속 최우등을 하고 있답니다.

분단의 어머니

쾌활하고 다정스러워 보이는 이 동무는 함경남도 오로군 상중 중학교 제 6분단 위원장 원 종백 동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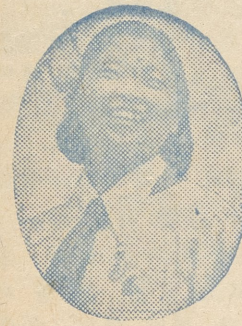
이 동무는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못쓰게 된 책상이 없는가하는 것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모쓰게된 책상이 있으면 꼭 고쳐 놓군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병으로 분단에서 영화감상을 조직할 때마다 같이 가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고 순덕 동무를 업고 가서 영화 구경을 시키는 동무이지요.

종백 동무는 금년에만도 9 가지의 군중 무용과 28 종의 새 노래를 분단 동무들에게 보급시켰답니다.

참말 어머니처럼 분단을 보살피는 동무예요.

때문에 종백 동무네 전체 분단 동무들은 《분단의 어머니》 라고 그를 부르고 있답니다.

원 종백

뜨거운 동지애로

량 인화

이 동무는 황해북도 은파군 서종 중학교 단 위원장 량 인화 동무랍니다. 학습과 모든 사업에서 모범이고 혁명 투사들처럼 동무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무랍니다.

이 동무는 자기가 먼저 회상기를 비롯하여 혁명 투사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은 책 80 여 권을 읽고 항상 혁명 투사들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는 지난해 여름, 학교에 가던 길에 강에 어린 아이가 빠진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뛰여 들어 구원했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집단에 취미를 못 붙이고 학습에 뒤떨어진 송 정해 동무를 매일 같이 10리'길을 걸어 그의 집을 찾아 가 같이 생활하면서 도와 주어 좋은 동무로 만들었답니다.

10분단을 비롯하여 4개 분단을 책임지고 도와 주면서 90 여 명의 동무들을 훌륭한 동무로 만든 동무이지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량 인화 동무를 누구보다 따른답니다.

단편 소설

신호'불

원 도 홍　　　　그림 김 진 항

배가 기슭에 닿았다.

《싱쿠아!》

손님들은 선가를 치르고 배에서 내렸다. 타는 손님은 없었다. 맨나중에 배에서 내린 중국 아주머니가 먼저 내린 사람들을 따라 가느라고 아기작거리며 동'둑우로 올라 가고 있었다.

광복이는 삿대를 쥐고 키가 넘게 자란 수수밭 사이로 난 길을 바라 보았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뿐이였다. 현 소재지로 가는 먼 언덕 길을 바라 보아도 배를 타러 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허리를 툭툭 치며 배'전에 걸터 앉아 허리춤에서 장죽과 싯누런 담배 쌈지를 꺼내였다. 그리고 부시'돌을 쳐서 담배'불을 붙이고 나서

《손님도 없는데 가 볼 데가 있으면 어서 가 봐라》

하고 아들을 쳐다 보았다.

《네》

광복이는 아까부터 아버지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얼른 삿대를 배 안에 뉘여 놓고 배에서 뛰여 내렸다. 그리고 배를 기슭에 매여 놓기가 바쁘게

《그럼 곧 갔다 오겠어요.》

하고 얼굴에 열적은 웃음을 띠우고 둑우로 줄달음쳐 올라 갔다.

아버지는 멋없이 덤비는 막내 아들을 보고

《야 광복아 거기 서서 내 말 좀 듣고 가거라.》

하고 그를 멈춰 세웠다.

《요새 놈들이 미친개 싸다니듯 하는데 단단히 조심해라.》

《네》

광복이는 돌아 서서 한 마디로 대답을 하고 수수밭 사이'길로 달려 갔다.

날은 무더웠다. 아버지는 멀리 사라져 가는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이젠 철들 나이도 됐지》

하고 굵은 주름살이 엉킨 구리'빛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광복이는 요새 와서 배에서 떠나는 도수가 매우 잦아졌다. 북만으로 원정을 갔던 유격대들이 국경이 가까운 이곳으로 진출해 나오면서부터 그가 속한 아동단에서는 그에게 강을 건너 다니는 일본놈들과 위만군, 경찰들과 일제 주구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보고하라는 과업을 주었던 것이다. 유격대들이 국경 지대로 진출해 나오자 겁을 먹은 놈들은 산악 지대로 통하는 이 나루터를 부리나케 건너 다니면서 유격대들의 활동을 탐지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눈이 벌개 날뛰였다.

아버지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혼자 배를 부리면서도 아들을 배에서 떠내 보내였다. 열 네살 밖에 안되는 어린 것이 제 나라를 찾겠다고 남몰래 뛰여 다니는 것을 보니 매우 기특한 생각이 들었었다. 자기도 독립 운동에 참가했었지만 그렇지 못했었다.

광복이는 환갑이 가까운 늙은 아버지를 혼자 배에 남겨 놓고 배에서 떠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도 혁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런 것은 사사로운 일 같이 생각되여 언잖은 것을 꾹 누르고 뛰여 가군 하였다.

현 소재지에서 구멍 가가를 차려 놓고 비밀 련락 공작을 하고 있는 김 영 아저씨에게 아침에 나루를 건너 다닌 원쑤놈들의 동태를 보고하고 광복이는 해가 기울어서야 나루 터에 돌아 왔다.

아버지는 나른해 돌아 온 아들을 보고

(이애가 또 현에 갔댔구나)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서 미역을 감고 땀을 드려라》

하고 말 하였다.

광복이는 20리가 넘는 현 소재지까지 단숨에 뛰여 갔다 오느라고 많은 땀을 흘렸다. 그는 화락하니 젖은 누런 베잠뱅이를 벗어 놓고 맑은 물 속으로 텀벙 뛰여 들었다. 한바탕 목욕을 하고 나니 기운이 나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한참 동안 헤염을 치던 그는 강 건너에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배에 기여 올랐다.

《힘들지 않니?》

아버지는 베잠뱅이를 줏어 입고 물로 뛰여 오르는 아들을 보고 물었다.

《일없어요 미역을 감으니까 기운이 더 나요. 아버지 그 동안 혼자서 힘들지 않았어요?》

광복이는 노를 마주 잡으며 아버지에게 되물었다.

《놈들의 단속 바람에 손님이 적어져서 편안은 하다. 그런데 야단 난 건 마 지주한테 갖다 바칠 배'세가 안돼서 야단이다. 아까도 마지주 마름놈이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골로 건너 가면서 왜 배'세를 가져다 바치지 않는가고 묻던데 오늘두 〈공짜 배기〉들만 뻔질나게 건너 다니구 여니 손님이야 몇 사람 돼야지.》

광복이는 아버지의 배'세 근심 보다 공짜로 건너 다니는 원쑤놈들이 뻔질나게 건너 다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띄였다.

《낮에 또 군대들이 건너 갔나요?》

《오늘은 군대놈들이 안 가고 웬 일인지 개들만 부리나케 건너 다니더라.》

아까 건너 갔다는 마지주의 마름 리가 놈도 일본놈들의 개였다. 뿐만 아니라 밀정 가운데서 왜놈들이 가장 믿는 놈이였다. 왜놈들은 강 건너에 있는 그놈의 집을 밀정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격대들의 활동과 지하 조직들의 활동들을 탐지하려고 날뛰였다. 그리하여 이놈이 현 소재지에 갈 때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군 하였다.

광복이는 이놈이 무슨 냄새를 맡고 일본놈들한테 갔을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버지 마 지주네 마름이 언제쯤 건너 갔나요?》

하고 노를 마주 잡아 당기며 물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이 일을 김영 아저씨에게 곧 보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아까 네가 간 뒤로 곧 따라 가더라.》

《어디 간다는 말은 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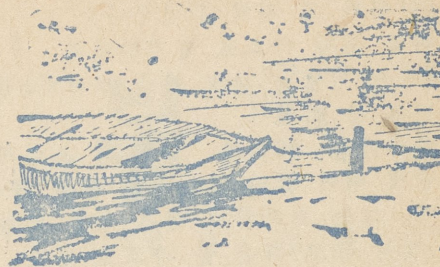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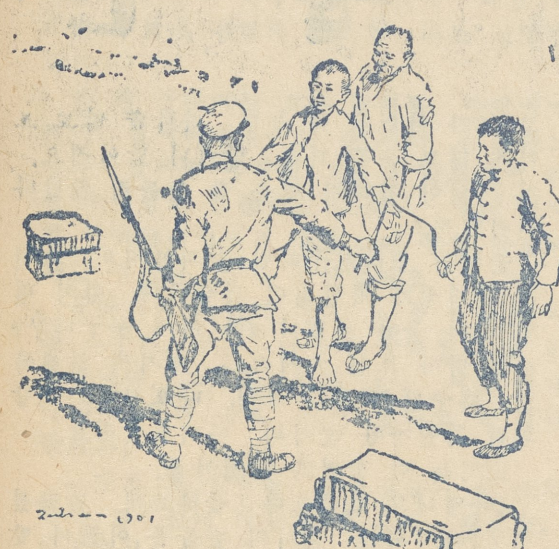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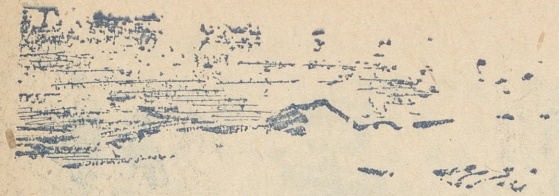
《그런 말은 없고 하루에 평균 몇 사람씩 건네는가? 수상한 사람이 건너 간 일은 없는가? 있으면 곧 저한테 와서 말하라는 말만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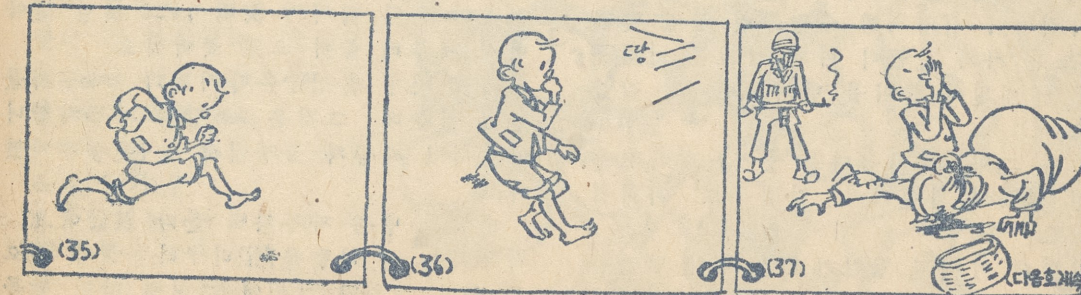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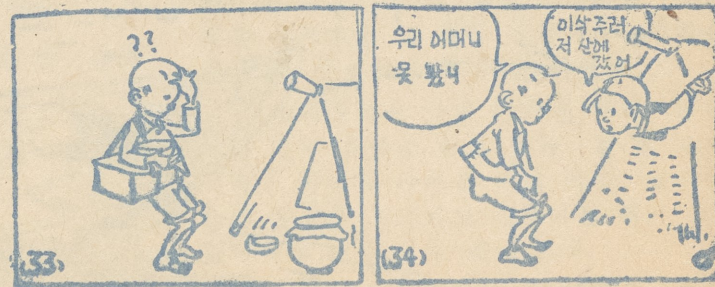
《내가 어디 갔는가는 묻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묻더라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장에 좀 보냈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뭐라구 그래요?》

《요새 철 없는 것들이 멋 없이 덤비는데

아몰을 잘 살피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코웃음을 하고 노를 놓고 배'머리로 나갔다.
배가 기슭에 닿았다. 기슭에 서서 배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 사람이 배에 올랐다.
광복이는 더 묻고 싶었으나 낯선 사람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배'머리를 돌리고 노를 저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다. 삐꺽삐꺽하는 노젓는 소리만 들렸다.
손님도 배 가운데 가만히 서서 건너쪽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배가 강심에 들어섰을 때 아무 말 없이 앞을 보고 서 있던 중국 사람이
《아이야…》
하고 놀라는 소리를 하였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야 저걸 봐라 일본 군대들이 오누나》
하고 현으로 넘어 가는 언덕 길을 눈짓으로 가리키였다. 밤빛 말을 탄 놈을 앞세우고 총들을 멘 누런 일본 군대들이 줄을 지여 서서 고개를 넘어 오고 있었다.
말을 탄 놈이 망원경을 눈에 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탄놈이 팔을 내 흔들더니 대렬에서 한놈이 뛰여 나와 이쪽으로 달려 오고 있었다. 마지주의 마름 리가 놈이였다. 일본놈 전투모를 머리 우에 올려 놓은 그놈은 수수밭을 가로 질러 오면서
《야 빨리 건너 오라》
하고 소리를 쳤다.
헐레벌떡거리며 나루터로 달려 온 리가 놈은 무슨 큰 일이나 난듯이 배에 뛰여 올라
《여보 령감 빨랑빨랑 배를 저어야지 공연히 꾸물거리다가 시간 늦으면 알지.》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눈을 부라리였다.
이윽고 무시무시하게 무장을 한 일본 군대들이 나루터에 와 닿았다. 놈들의 뒤로 큼직한 탄약 상자들을 진 사람들이 따라 왔다.
광복이는 그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눈이 커졌다. 아까 보고를 가지고 현 소재지에 가서 만나고 온 김 영 아저씨가 부락민들의 맨 앞에 서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김 영 아저씨도 광복이를 보았다. 그는 광복이가 놀라는 눈치를 보고 눈을 끔뻑끔뻑 해 보이고 고개를 숙이였다. 모르는 체를 하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광복이는 자꾸만 그에게 눈길이 갔다. 그는 노질을 하면서도 아저씨가 어떻게 돼서 놈들에게 끌려 왔을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세번째 배에 몇놈 남은 왜놈 군대와 탄약 상자를 지고 온 사람들이 올랐다. 아까 배에서 내린 중국 사람도 일본 하사관놈에게 붙들리여 다시 배에 올랐다.
40 고개가 넘어 보이는 중국 사람은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고 급히 큰집에 가던 길인데 사정을 좀 봐 달라고

하사관놈에게 빌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빠가야로 타라면 타》
탄약 상자를 진 사람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살피고 있던 하사관놈은 중국 사람의 멱을 그러쥐고 배에 끌어 올리였다.
배가 떴다. 광복이는 노질을 하면서 이물에 올라 서 있는 김 영 아저씨를 살펴보았다. 흰 바지 저고리에 회색 조끼를 바쳐 입고 있는 김 영 아저씨는 강 건너 솟은 먼 산을 바라보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더 광복이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광복이는 암만 보아도 그가 놈들에게 끌려 온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정 쫓아 왔을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 놈들이 토벌을 떠나는 것을 알고 유격대를 도와 주려고 우정 짐'군이 되여 끌려 왔을지도 몰라)
광복이는 태연히 담배만 피우고 있는 김 영 아저씨의 옆 모습을 바라 보며 여러 가지로 생각에 잠겼다.
배가 건너편 기슭에 닿자 먼저 건너와 쉬고 있던 왜놈 군대들이 기관총, 소총, 척탄통들을 들고 일어 섰다. 어떤 놈들은 짐이 무거워서 땀 투성이가 되고 녹초가 되여 있었다.
짐을 지고 온 사람이 다 내리자 하사관놈은 행여나 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서 있는 중국 사람과 광복이를 보고 배에서 내려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녹초가 된 놈의 짐을 지라는 것이였다.
뜻밖의 일에 광복이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니 군대 나리 이 애가 가면 배는 누가 부리우.》
아버지는 하사관놈을 쳐다 보았다.
《잔말 말앗.》
하사관놈은 눈을 부릅뜨고 채찍을 높이 쳐들었다. 이것을 본 광복이는 아버지 앞에 막아 서서
《지고 갈테에요. 아버질 때리지 말아요.》
하고 하사관놈을 노려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과일 동산

글 리근실　　그림 현재덕

이따금 선선한 바람이 섞이여 부는 맑은 날이예요.

가을 방학을 맞아 순이는 발발이를 앞세우고 외가'집을 찾아 가는 길이지요.

자꾸만 걸어도 끝없이 사과 나무, 배나무, 살구 나무들이 연달아 섰고 포도 넌출이 꽉 엉키여 하늘이 보이지 않았고 향기로운 과일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가지마다 휘여지게 주렁주렁 열린 빨갛고 노란 사과 알들이 마치 서로들 머리를 갸우뚱 내밀어 순이를 반겨 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만 그 아름다운 풍경, 향기로운 과일 냄새에 황홀해서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가요? 그의 발걸음이 점점 드려지고 두 눈이 둥그레지기 시작했어요. 가도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 그가 어렸을 때 놀던 다박솔 밭도 보이지 않고 온통 과일 밭이니 말이지요. 정신 없이 걷다가 길을 잘 못들지 않았나 해서였지요.

순이는 두리번두리번 살피였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돌아 섰더니 《야 이게 누구냐?》하고 닥아 오는 아저씨가 계시지 않겠어요. 과수원을 돌아 보려 나오셨던 조합 관리 위원장인 순이의 아저씨였지요.

순이는 막 달려가 안겼어요.

《어떻냐? 그때보다 몰라보게 달라졌지?》아저씨는 순이의 손목을 이끌며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는 겨우 몇 그루의 사과와 배 나무가 있던 마을이였거든요.

아저씨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1961년 4월)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나라 어디라 없이 다 과일 동산으로 되였지만 아저씨네 조합 마을에서는 온통 떨쳐 나서서 불과 4~5년에 이렇게 야산들을 일구어 과일 동산을 만들어 놓았다지 않아요.

순이는 아저씨와 함께 과일 동산 구경을 떠났지요.

험한 골짜기였던 덤불'골은 과일 나무로 빼곡하였어요.

그전날 덤불'골은 뱀도 많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고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묵여 오던 곳이예요.

이때 마침 운전수 아저씨가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그것은 조합의 자동차랍니다.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승용차였어요.

순이는 냉큼 자동차에 올라 앉았어요. 자동차는 산 비탈을 구비구비 돌아 산으로 올라 갔지만 그전에 그처럼 많던 잡목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냥 과일 나무 속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300메터나 되는 산 허리에 곧게 줄을 지어 심은 사과 나무 사이에서 뜨락또르며 여러가지 기계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마을 언니들이 바구니를 허리에 차고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사과를 따고 있었답니다.

한 때 사과라는 것은 평평한 땅에서만 되지 언덕바지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북청의 모범을 받으라고 하신 수상님의 말씀대로 30도나 되는 경사진 언덕바지에까지 층층으로 둑을 만들어 과일 동산을 꾸린 것이였어요.

올라가며 보니까 사과 나무 사이 둑에는 스구리, 딸기 나무가 줄기를 뻗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가 많이 와도 땅이 비'물에 밀려 내려 가지 말라고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둑에는 동이만큼씩 큰 호박들이 열렸는데 여름내 떡 호박, 참호박, 앉은뱅이 호박을 골라가며 먹으니 좋아, 넝쿨은 걷어 소와 돼지를 먹여 축산을 발전시키니 좋지요.

순이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난듯 《량강도나 자강도 산'골에도 과일이 있는가요?》하고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있구말구 산 딸기, 머루, 다래, 오미자 무엇인들 없겠니. 외국 사람들도 탐내는 량강도 그 많은 들'쭉은 어떻겠니, 우리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으뜸 가는 과일 동산이다.》하고 아저씨는 아이들처럼 으시대듯 엄지 손가락을 내밀어 보였지요. 자동차는 어느새 큰 사과 무지 곁에 멎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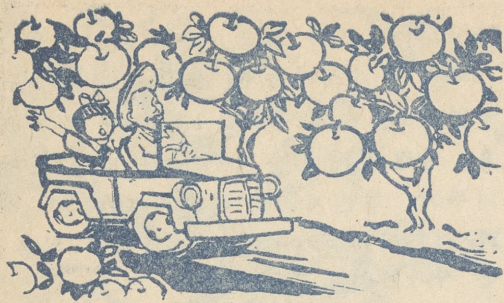
사과 무지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색종이에 깨알만한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이 작게 보였지요.

《자 맛 좀 보렴 얼마나 맛 좋은가.》

아저씨는 웃으며 큰 사과 한알을 집어 주시였습니다. 순이는 사과를 받다가 그만 떨궈버렸답니다. 갓난 애기의 머리 만한 사과였으니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다른 것을 또하나 쥐여주었지요. 그건 《남포 1호》라는 사과였어요. 껍질이 두터운 《국광》과 맛은 있어도 거두기 힘든 《골덴 데리샤스》라는 사과와 접하여 가꾸어 낸 사과였는데 처음 보는 사과였어요.

입 안에 넣으니 사탕 같이 달고 향기로워 순이는 저도 모르게 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기에 외국 사람들도 우리 나라 사과라면 모두 일러준단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먹기가 아까워 멋있는 구럭에 넣어 달아매 놓고는 하루 종일 만져보며 냄새를 맡는다더라!》하고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였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신이 나서 우리 나라 과수업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정말 우리 나라는 과일 동산이란다. 북청, 안변, 봉산, 송화, 그리고 황주, 어디가나 과일 밭이다. 아마 송화 과수 농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큰 것은 드물게다. 그뿐이겠니 깊은 산에는 또 산 과실이 얼마나 많겠니.》

이번에는 색갈이 노란 사과 한알을 집어 주시고 나서 아저씨는 말씀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말 몇해 전 까지만 해도 풀과 나무만 있던 야산들과 경사지들이 과수원으로 변했다. 바로 북청 회의 때에 당이 하자고 했던 30만 정보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온통 과일 동산으로 덮어놨단 말이다.

그래 지금 우리 나라는 인구 한 사람 앞에 차례지는 사과가 많기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찾이하고 있단다.》

순이는 먹던 사과를 손에 든채 정신 잃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따라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나라에서 먹고 남는 사과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글쎄 사과 한 톤이면 쌀은 3톤, 사탕도 3톤, 고급 천은 472m와 바꾼다지 않아요.

아저씨가 신이 나서 엮어 내리는 바람에 그만 순이는 침을 꿀컥 삼키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지요.

《아저씨 이 많은 사과를 어떻게 가꾸나요.》

《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니.》하며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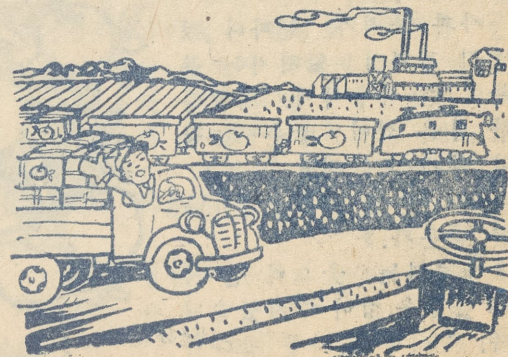
예전에는 국광이나 홍옥 같은 늦은 사과만 심었기 때문에 가을이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만큼 바쁜 농촌이 더 일'손이 딸렸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괴, 축, 욱, 같은 올 사과와 인도, 데리샤스, 국광, 홍옥, 왜금 같은 늦사과도 섞어 심기 때문에 일'손도 골고루 돌아 간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일을 다 기계로 하니 일은 배나 헐하게 되고 소출은 몇배나 늘어난다는 것이예요.

순간 순이는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사과 나무는 40년 이상 더 못사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다 낡은 이야기라면서 아저씨는 흥미 있는 《다리 접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그 전에는 40년이 지나면 가지도 뿌리도 차츰 죽어 버렸지.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 자란 싱싱한 가지를 죽어 가는 가지나 그루에다 접을 하거던. 그러면 다시 잎이 살아 나고 죽어 가던 뿌리도 새 가지를 접하면 제법 물을 빨아 올리거든, 그래서 100년도 200년도 살게 만든단 말이다. 이를테면 사과 나무도 좋은 세상을 만나 늙은 나무는 젊어지고 애나무는 무럭무럭 자란단 말이다. 그러니 근심 할건 없다.》 하고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윽고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이야기에 너무 신이나다보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지요.

순이는 아저씨와 함께 다시 자동차를 탔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아저씨는 저 멀리 높은 굴뚝에서 연기나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과실로 벼라 별 것을 다 만드는 지방 산업 공장이였어요. 거기서는 사과만 가지고도 사과 잼, 사과 쩨리, 사과술, 발효주, 사과 통조림, 시로프, 말리운 사과 등을 만들고 배, 포도, 복숭아, 살구, 추리, 딸기, 오미자, 들'쭉을 가지고도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아저씨는 설명해 주시는 것이였어요.

높은 곳에서 한 눈에 굽어 보이는 마을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고개 뒤에 또 고개 첩첩히 연달아 선 얕은 산들은 온통 과일 나무로 뒤덮여 마치 파랗고 빨간 비단 보를 씌워 놓은 것 같았어요.

앞에는 넓고 푸른 바다!

갈매기들이 훨훨 춤을 추며 작고 큰 파도는 밀려 오고 밀려 가며 백사장을 씻어 내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어요.

순이는 그 언젠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 났습니다.

그 때는 《무릉 도원》이란 무엇인지 몰랐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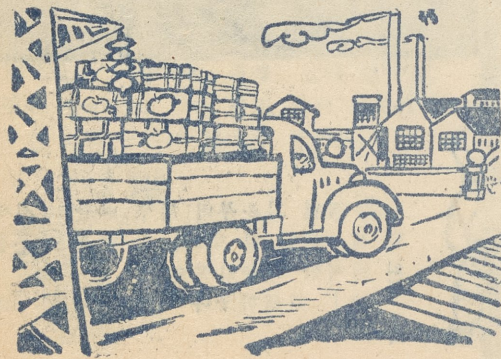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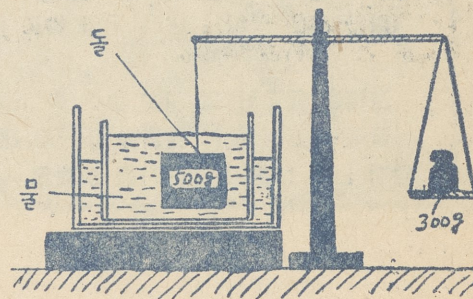
머나먼 옛날 어떤 사람이 물 우에 사과꽃, 배 꽃, 복숭아 꽃이 떠내려 오기에 그를 따라 올라 갔다나요.

가고 또 갔더니 사과 나무, 배 나무, 복숭아 나무에 온갖 과일들이 울긋불긋 주렁지고 각 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나비들이 춤을 추며 꾀꼬리 노래하고 부지런한 꿀벌들이 꿀을 날라 오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산이 나타났답니다.

순이는 생각했지요.

그런 아름답고 풍요한 곳이 다름 아닌 오늘의 우리 나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좋치만 래일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을 것인가! 이것이 다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덕분이지.》

순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기쁨과 자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안고 어서 커서 나라에 믿음직한 일'군이 되리라고 다짐하며 산을 내렸지요.

왜 가벼울가요?

물을 담은 그릇 속에 500g의 무게를 가진 돌을 넣고 그림과 같이 물 속에 서돌을 다시 저울에 달아 보십시요.

돌의 무게는 300g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은 물 속에 들어 오는 모든 물체를 우로 밀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물의 부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무게의 물체라도 그 체적이 크면 클수록 물 속에서의 무게는 적어 집니다. 기선이나 군함과 같은 큰 배들이 바다 우에 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물의 부력》 때문입니다.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

얼마 전에 평양시 외성 구역 동흥 중학교 소년단원들을 찾아 간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들은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체육에도 열성이 대단 했어요.

글쎄 이들이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① 동흥동 아빠트 마을 소년단원들의 조기 체조 시간이예요. 인민 보건 체조가 끝나면 달리기도 하지요.

넓어진 가슴, 힘 솟는 팔 다리,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날마다 하는 조기 체조는 이들의 몸을 튼튼히 해주지요.

② 작년 가을부터 랭수 마찰을 시작한 제 6분단 김 창태, 리 정세 동무들의 씩씩한 모습이지요.

《야! 씨원하구나 감기 따위가 다 뭐냐》

③ 업간 체조 시간이지요,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하던 몸을 이렇게 폈다 굽혔다 체조를 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요.

④ 방과후 10분단 동무들의 씨름판도 기운이 솟지요.

《이겨라 이겨라 1반 선수 이겨라!》

반별 경쟁이 한창이예요.

⑤ 14분단 신 용녀 동무는 높이 뛰기에서도 1메터 20센치씩 씽씽 날아 넘지요. 14분단 동무들은 지금 인민 체력 검정에 합격하기 위해 날마다 련습을 하지요.

앞날의 과학자들

평남 룡강군 대안 중학교 단에서

내가 이곳 학교를 찾아 교문에 들어 섰을 때는 오후였다.

커다랗고 아담한 3층 집 학교 지붕에서 바람개비가 가을 바람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하도 큰 바람개비기에 나는 운동장에서 신이 나게 공을 차고 있는 소년단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지붕 우의 바람개비는 뭘 하는 건가요?》

《우리 물리 크루쇼크에서 만든 풍력 발전기예요.》

소년단원들의 대답은 자랑에 찼었다.

나는 자기들의 손으로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다는 이 한가지만 가지고서도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쓸모있게 다져 가며 래일의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중앙 현관을 지나 복도에 들어 섰을 때였다. 복도 중앙 벽과 량 끝 쪽 벽에 달린 파란 전등이 켜지자 《찌르릉 .찌르릉—》 하고 베루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러자 운동장에서 뛰 놀던 아이들이 재빨리 교실로 밀려 들었다.

나는 종이 울린 쪽으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통에 달린 전기 종이 걸려 있었다. 통안에서는 시계 소리처럼 《잘칵 잘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나는 교장 선생님과 소년단 지도원 선생으로부터 그것이 자동 전기 종인데 4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이 울리고 10분이 지나면 또 수업 시작을 알리게 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 자동 전기종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문헌을 학습하면서 2분단의 박경보 동무를 중심으로한 물리 크루쇼크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였다.

내가 물리 크루쇼크 실을 찾아 갔을 때였다. 무엇인가 뜯어 보고 맞추어 보며 분주히 돌아가는 소년들의 틈에서 나는 대안 전기 공장 로력 영웅 권 문필 아저씨를 만났다. 마침 아저씨는 이곳 동무들에게 복권 변압기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로력 영웅 아저씨는 나에게 《훌륭한 꼬마 전기 기술자 들입니다. 이게 모두 소년단원들의 솜씨랍니다.》 하며 이곳 동무들이 만든 변압기, 전기의 세가지 작용을 보여 주는 실험 기구를 비롯하여 가지가지 물건들을 가리키는 것이였다.

단 위원회에서는 제4 차 당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 내용을 학습하고 앞날의 조국의 쓸모 있는 일'군이 되기 위하여 수학, 물리, 화학, 생물등 과학 기술의 기본 과목들을 더 잘 학습하여《꼬마 발전소》도 만들며 실습 공장에 있는 수동 프레스, 회전 톱을 비롯한 실습 도구들을 기계화, 자동화 하자고 토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물리 크루쇼크에서는 홍 창조 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이 학습과 실험 실습을 거듭하여 자동 전기 종을 만들었다. 박 경복 동무를 비롯한 조 득권 동무들은 지붕에 물 땅크를 만들어 놓고 비'물을 받아 꼬마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들은 풍력 발전기에서 얻은 12 볼트의 전류를 단권 변압기에 련결시켜 60 볼트로 전압을 높이고 있으며 꼬마 수력 발전소에서 얻은 3 볼트의 전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압기에 련결시켜 50볼트로 전압을 높이여 화학 실험실과 물리 실험실에 사용하고 있다.

크루쇼크원들은 나에게 수력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스위치를 넣었다. 7메터의 높이에서 물이 수관으로 쏟아져 내리더니 발전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배전판에는 붉은 전등이 켜졌다. 전기가 일어난 것이다.

바람의 힘과 비'물을 리용하여 전기를 일쿠는 이들이 이제 10년, 20년 후이면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 한없이 믿어웠다.

나는 물리 크루쇼크실을 나와 실습 공장에 찾아 갔다. 공장 안은 선반기, 불반이 돌아가는 소리며 어린 용접공들이 일쿠는 불'빛, 마치 소리로 요란하였다.

《우리는 제 4차 당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보고를 학습하면서 기계화 자동화된 조국 앞날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화 자동화에 대하여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실습 공장의 기계들을 모두 자동화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홍 문보 동무가 자신 만만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였다.

그는 물리에서 배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법을 리용하여 수동 프레스 축을 자동적으로 우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크랑크를 만들어 프레스를 자동화한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옆 방에서는 인민반 소년단원들이 목재로 삼각자, 콤파스, 필통, 완구들을 만들고 있었으며 목선반에서 계수기 알을 깎고 있었다.

이들은 이처럼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조국 앞날의 쓸모있는 일'군으로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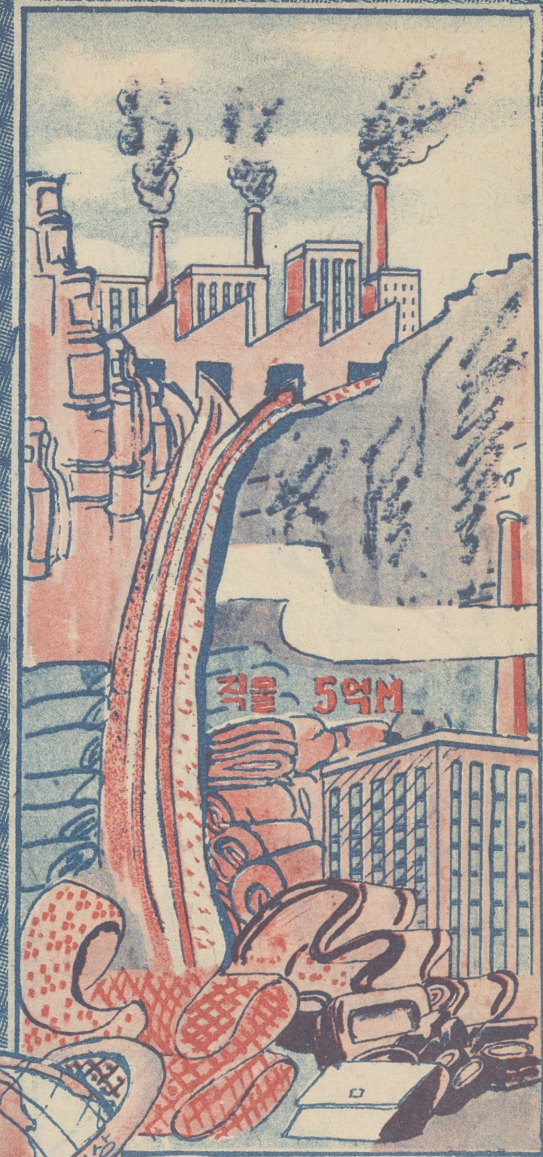
래일의 훌륭한 용해공, 선반공, 광부, 어로공, 과학자. 발명가들을 만나 보고 교문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흐뭇하였다.

위대한 7개년계획의 전망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는 7개년 계획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었다. 7개년 기간에도 우리 당은 중공업을 앞세우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을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1967년에 가면 전쟁전 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게 되며 지난 5개년 계획 전 기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자면 철과 기계가 더 많아야 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있는 제철소와 제강소들과 기계 공장들을 더 잘 리용하면서 새로운 제철소 제강소들과 기계 공장들을 더 세워 근로자들의 일은 헐하게 되며 무슨 기계든지 척척 만들어 내게 된다.

다음으로 중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많이 생산하여 나라의 전기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업의 빵인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광산도 더 많이 개발하여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을 모두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 리용하게 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든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더 많은 비날론 비크론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옷감을 더 많이 짜고 비료와 농약 (벌레 풀들을 죽이는 약)을 많이 만들며 또 더 많은 의약품도 만들어 내여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7개년 계획기간에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우선 옷감은 첫 2~3년간에 3억m를 짜서 인구 한 사람 앞에 30m씩이 차례지게 하며 1967년에 가서는 5억m를 짜서 인구 한 사람 앞에 50m씩이 차례 지게 한다.

이밖에도 종이 신발 식료 가공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살림을 더 좋게 해 주게 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산업도 크게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있는 배들을 기계화하고 새로 더 많은 배를 뭇고 과학적인 어로 방법을 써서 많은 고기를 잡으며 어항들도 새로 꾸리고·수산물 가공 사업도 발전시키게 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더 많은 농기계들이 일하게 되고 수리화도 더 하고 새 땅도 더 늘쿠어 7개년계획 말에 가서 량곡 생산을 600~700만 톤 수준에 달하게 한다. 이와함께 공예작물 축산 과수 잠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기 실과들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아담한 문화 주택들과 학교 병원들도 더 많이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이밥에 고기 반찬에 기와집을 쓰고 살게 될 것이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는 더 많은 문화 주택들이 건설되게 된다. 도시와 로동자구에는 새로 60만 세대의 주택이 건설되게 되며 도시에는 가스로 밥을 짓게 하며 온수도 공급되도록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60만 동의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건설되여 오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낡은 초가집을 버리고 열사한 문화 주택에서 살게 될 것이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실질 수입은 지금 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게 될것이다. 이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에게서는 세금이 농민들에게서는 현물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더 많은 문화 주택이 일어서고 학교와 학생수가 더 늘뿐더러 기술 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제가 실시 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남부럽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 박응호
그림 최순천

(66) 식기 소제가 끝나자 지도관 놈은 다시 그를 마구'간으로 끌고 갔다. 산처럼 무져 놓은 말똥을 치우라는 것이다.

그는 말똥을 광주리에 퍼나르면서 저쪽 황철나무 밑에서 중기, 경기며 기타 총들을 소제하고 있는 놈들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놈들은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게 분명했다.

(67) 마구'간에 걸린 벽시계가 두 시를 쳤다. 그러자 보초들이 교대들을 하려 대여섯 놈씩 한 줄로 서서 병영을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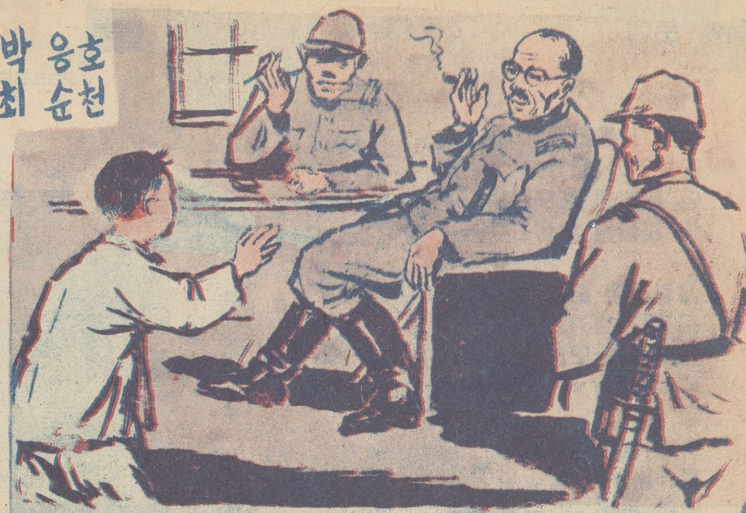
문섭이가 이 곳 소제를 시작한 것이 열 두시였으니까 보초 교대는 두 시간임이 틀림 없었다. 문섭이는 병영에서 나가는 놈들의 수효도 일일이 머리에 새겨 넣었다.

(68) 이제는 놈들의 이동 정형을 탐지해야 했다. 그는 말똥을 담은 광주리를 지고 우정 놈들이 세탁을 하고 있는 쪽으로 슬슬 다가갔다.

놈들이 떠드는 말소리가 귀에 들렸다. 문섭이는 일본 말을 할 줄은 모르나 며칠 후에는 떠난다는 말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문득 놈들이 《토벌》을 떠나는 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69) 문섭이는 급히 말똥들을 말끔히 치우고 지도관 놈이 있는 방으로 들어 갔다. 지도관 놈을 비롯한 다섯 놈들이 문섭의 담배를 꺼내 피우고 있었다.

문섭이는 달려 들어 왜 남의 담배를 피우냐고 또 울음을 터뜨리며 당장 돈을 내라고 야단쳤다.

그러자 한 놈이 래일부터 자기들이 여기에 없으니 꼭 열흘 후에 와서 받으라고 하였다. 열흘 이것은 바로 문섭이가 알아 내려던 그것이였다.

(70) 병영 안을 샅샅이 탐지했고 놈들의 출동 날'자까지 알아 낸 문섭이는 나는듯이 야장'간으로 달려 왔다.

문섭이의 대담한 행동과 정확한 정찰에 야장'간 아저씨는 저으기 기뻐하셨다. 그는 문섭이를 끌어 안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였다.

(71) 문섭이의 정찰 보고를 듣고난 정치 위원의 얼굴에는 금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의 기색이 활짝 피여 났다. 그의 정찰 자료는 이번 유격대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 것이기 때문이였다. (다음 호에 계속)

축포가 올라요

축포가 올라요
꽃보라가 퍼져요
당 대회를 경축하며
밤 하늘을 수놓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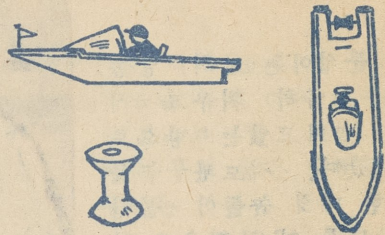
사람들은 떨쳐 나와
축포를 반기고
꽃보라는 오리오리
우리 행복 수 놓아요

아빠 엄마 얼굴들
붉게붉게 물들이며
당이 밝힌 앞 길을
어서 모두 보라고

5색 빛 뿌리며
축포가 터져요.
7개년 높은 고지
단숨에 오르자고

아빠 엄마 손 저으며
만세만세 부르고
나는요 최우등생 되겠다고
두손 번쩍 들었죠

평양시 서성 구역
룡북 중학교 1학년 김 영기

현상 문제

영남이가 만든 배

학교에서 돌아온 영남이는 공작 시간에 배운 지식을 익혀가며 그림과 같이 움직이는 배를 만들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토리를 리용하여 배 뒤에 달 프로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동무들!

영남이는 실토리를 리용하여 프로페라를 훌륭히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프로페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림을 그려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 보시요.

☆ 8 호 현상문제 답 및 당선자

☆ 현상 문제 답안

(1) 항일 빨찌산 회상기 《불무지 보초》에서 김 일성 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 항일 빨찌산 회상기 《리 화순 동무의 최후》에서 리 화순 누나가 하신 말씀입니다.

☆ 현상 문제 당선자

함북도 김책군 칠평 중학교 (인민반 3 학년) 라 길섭
함남도 오노군 오로 중학교 홍 주수
강원도 원산시 평화 중학교 길 춘희
자강도 고풍군 고풍 중학교 리 미훈
평북도 동림군 신곡 중학교 한 정범
평남도 대동군 학수 중학교 강 윤필
평양시 평천 중학교 리 옥희
황남도 해주시 연하 중학교 리 영희
황북도 황주군 청운 중학교(인민반 4학년) 리 광삼
개성시 자남 중학교(인민반) 최 혜정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10 호 (총 14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 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498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재능있는 《꼬마 예술가》들

평양시 기림 중학교 김 용운 동무의 바요린 독주

만경대 학원 초급반 소년단원들의 바라이데 《붉은 씨앗은 자란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김혁 시.곡

빠르지 않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즐겁다 손풍금소리울려 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 - 는 내조국 한없이좋 네
(후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집은당의 품
우리는모두 다가 친 형제 세상에부러움없어 라

2. 풍년새 울어라 흥겨운 들판에
손풍금 소리 마추어
설레는 이삭 고개 숙여
수령님께 감사 드리네
(후렴)

3. 흰 구름 흐른다 맑게 갠 하늘에
손풍금 소리 울려라
비날론 무지개를 타고
선녀들 춤추는 나라

평북 청수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체육 무용 《즐거운 야영》의 한 장면

평남 숙천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가야금 병창

평남 남포시 남흥 중학교 윤 승천 동무는 한 유숙 동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손풍금 소리 울려라》를 부르고 있다.

평양시 기림 중학교 김 용운 동무의 바요린 독주

손풍금 소리 울려라

김혁 시.곡

빠르지 않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즐겁다 손풍금소리울려 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조국 한없이좋 네

(후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집은당의 품

우리는모두다가 친 형 제 세상에부러움없어 라

만경대 학원 초급반 소년단원들의 바라이데 《붉은 씨앗은 자란다》

2. 풍년새 울어라 흥겨운 들판에
손풍금 소리 마추어
설레는 이삭 고개 숙여
수령님께 감사 드리네
(후렴)

3. 흰 구름 흐른다 맑게 갠 하늘에
손풍금 소리 울려라
비날론 무지개를 타고
선녀들 춤추는 나라

평북 청수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체육 무용 《즐거운 야영》의 한 장면

평남 숙천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가야금 병창

평남 남포시 남흥 중학교 윤 승전 동무는 한 유숙 동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손풍금 소리 울려라》를 부르고 있다.